

# Xavier le roy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서사적 기법 연구 : 작품 <다른 상황의 산물(Product of Other Circumstances), 2009>를 중심으로

박중현\*, 박나훈\*\*

\*추계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무용학과

\*\*영산대학교 연기공연예술학과

e-mail : atom\_79@daum.net, bsmotel@hanmail.net

## A Study on the New Epic Techniques in Xavier Le Roy

Jong Hyun Park\*, Na Hoon Park\*\*

\*Lifelong Education Center,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Dept. of Acting & Musical, Youngsusan University

### 1. 서론

2009년 초연된 자비에 르 로이에 의해 안무되어진 <다른 상황의 산물>은 ‘부토’라는 생소한 무용 형식을 신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2시간가량을 강의 형태로 진행한 레처 퍼포먼스 작품이다. 부토의 경험이 없던 안무가 로이는 2009년 보리스 샤르마츠에게 ‘2시간 만에 부토 무용수 되기’ 프로젝트를 제안 받으면서 이 작품을 출품했으며, 로이는 안무에 있어 그리 특별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부토의 수행 과정을 고스란히 무대로 옮겨내고 있다. 이 공연수행과정을 통해 춤의 확장성과, 서사적 표현 기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서사적 기법

<다른 상황의 산물>은 부토에 대한 일화, 인터넷, 책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융합,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지극히 일반적이고도 단순한 형태의 성향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노트북,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며, 기하학적으로 관절을 분절시켜 부토를 재현하기, 티노 세갈의 춤과 산카이 주쿠 무용단의 공연을 직접 재현하기 등 신체의 참여도를 보이는 반면, 부토의 정의 및 설명, 부토의 공연 영상, 부토에 관한 책 등의 직접적인 설명으로 부토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로이의 안무 성향은 새로운 서사의 여러 경향 중 유럽에서 일고 있는 ‘자기 이야기하기’ 공연에 주목하여 감각적 자극과 의미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또 다른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도 있다. 새로운 서사 이전의 포스트드라마 연극에서의 시간은 대부분 그 변화와 흐름을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었지만, 새로운 서사로서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기억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으로 본다면 로이의

<다른 상황의 산물>은 서사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공연으로서, ‘2시간 만에 부토 완성하기’라는 과제에서 자신만의 부토를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여 관객도 그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공연자 개인의 서사는 관객 개인의 서사로도 변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만들어낸 결과물만 보았다면 ‘그 춤이 부토인지 아닌지’에 논란을 생성해 낼 것이지만 말이다. 이는 로이의 그동안 작업의 중심이었던 ‘물질로서의 몸의 표현’ 뿐 아니라 새로운 형식을 위한 탐색을 관객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 구분이 무의미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진성성의 미학을 추구하는 공연이라 평가되고 있다.

### 3. 결론

너무나도 가상적이면서 실험적 형태의 추구는 강의와 공연의 혼합체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예술 간의 경계 드나들기’라는 말로 장르간의 파괴를 의미한다. 문화적, 예술적 차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신체를 일상적 방법론에 관한 스토리텔링의 도구 즉, 춤을 단지 재료만으로 인식하여 움직임의 부재를, 또한 강의와 공연의 혼합체로 서사적 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춤의 확장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김형기, 심재민, 김기란, 최영주, 최성희,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미학”, 2011.
- [2] 김수진, “새로운 서사와 연기의 진정성에 관한 연구—르 뒤와 제롬 벨의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드라마학회지, Vol.37, No.37, pp.5-33, 2012.
- [3] 오선명, “유럽 현대무용의 미학적 변이와 표현형식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Vol.29, No.29, pp.27-46, 2010.